

보도시점 2024. 8. 6.(화) 10:30 배포 2024. 8. 6.(화) 08:00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양성과정 이수제도 도입... 실무능력 확보

-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월 17일부터 시행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실무능력을 갖춘 정수시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요건을 개선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자격으로 1·2·3급으로 구분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이 부여되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이 현장의 실무능력을 강조하는 양성과정 이수 제도로 변경*된다.

*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8월 16일까지 3급 자격시험과 양성과정을 병행하여 운영, 2026년 8월 17일부터 양성과정만 운영

이번에 신설되는 3급 양성과정은 정수장의 공정·수질·설비 관리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성되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그밖에 수도 관련 업계의 불편 사항도 개선된다. 조사·연구사업만 하려는 물질약전문업이 등록할 경우 누수탐지기가 없더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다른 자격증과의 형평에 맞게 이공계 학과 졸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취득이 가능하도록 학력 기준이 조정됐다.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은 5년 이상 실무경력, 2급은 1년 이상 실무경력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정수시설에 배치하여 수돗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장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수도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수도기획과	책임자	과장	배연진 (044-201-7110)
		담당자	사무관	이형우 (044-201-7121)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1. 추진배경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3급의 자격요건을 양성과정 이수로 변경하는 「수도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 규정 필요

*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의 자격요건을 자격시험에서 양성과정 이수로 변경, 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23.8.16. 개정, '24.8.17. 시행)

2. 주요 개정내용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요건 변경(안 제41조제3항 신설)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요건을 자격시험(한국산업인력공단) 합격에서 3급 양성과정 이수로 변경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수탁기관 규정(안 제41조의2 신설)
 - 3급 양성과정 수탁기관을 한국상하수도협회로 지정
- 전문업 등록요건 및 기술인력 자격요건 완화(별표1의5, 별표3의2 개정)
 - (물절약전문업) 인력기준 및 조사·연구사업만 하는 경우 장비기준 완화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충분한 실무경력 갖춘 경우 학력조건 완화

3. 기대효과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의무배치와 실무능력을 강조하는 양성과정 이수제도 도입으로 정수시설 실무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및 기술인재 양성 기대
- 물절약전문업 등록요건 합리화로 물절약전문업 진입 활성화 기대, 기술인력 학력요건 완화로 실무능력을 갖춘 기술인력 양성 기대